

13개국 74개 갤러리부스...시민 함께 즐기는 미술축제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6'...24~28일 문화전당



114개 개인부스
작가에 직접 설명 들으며
작품 감상·구입

유네스코·비엔날레 특별전
사회리더 드로잉전 등
풍성한 기획전 눈길

비엔날레 특별전, 유네스코 특별전, '8·24광주아트파티', '페차쿠차 광주 2016'. 다음주(24~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6'(이하 아트페어)은 독창적인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 발길을 사로잡는다.

국내외 13개국에서 참여하는 74개 갤러리 부스는 예술극장에 위치한다. 프랑스 파리 갤러리B.O.A, 보드양 르브, 독일 최앤라거 갤러리, 일본 레타라 갤러리 등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서울 샘터화랑, 박영덕 화랑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

114개 개인작가부스는 문화정보원 지하 2~3층에 마련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작가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아트페어는 프랑스 미술기관과 연계해 광주 작가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기획전은 국내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특별전이다. 문화전당에 '빅토리 2015'작품을 설치한 중국 왕두 작가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남 출신 한홍수 작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의를 불러 일으킨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다루며 평화를 이야기한다. 왕두 작가는 24일 오후 6시 개막식에서 광주일보 등 지역신문을 재료를 미사일을

형상화한 작품 '다나토스: 죽음의 본능' 제작 퍼포먼스를 펼친다. 한홍수 작가가 출품하는 회화 '에로스'는 미사일이 쏘아지는 모습이다. 유네스코 특별전에서 판매된 작품 수익금 일부는 유네스코에 기부된다.

비엔날레 특별전(장조원 복합 5관)은 국내·국제전으로 나눠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일인 11월6일까지 계속된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심은숙 미술비평가 큐레이터를 맡은 국제전은 '0(공)상공화국'을 주제로 35명 작가가 참여해 신제 주제 작품을 전시한다. 국내전(큐레이터 최재영)은 '빛, 생명, 물질'을 주제로 지역작가 25명이 참여해 빛을 통한 생명의 탄생과 신비를 다룬다.

광주 대표작가로 꼽히는 강연근·황영성 특별전(장조원 복합6관)도 열려 광주 미술을 알린다. 각 10점씩 약 20점이 출품되며, 강연근·황영성 화백은 아트페어 기간 가장 발전가능성이 큰 청년작가를 각 1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25~27일 오후 3~7시 예술극장 외부계단에서는 '페차쿠차 광주 2016'이 진행된다. 작가 41명이 참여해 작품 20점을 400초 이내에 소개하는 이벤트다.

사회리더 드로잉전도 눈길을 끈다. 대나무 정원에 설치된 캔버스에 행사장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판매 수익금은 기부하는 행사다.

야외 공간에서는 '2016 조형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작가 약 100명이 참여해 조소 100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전통 기법부터 최근 각광받는 작품까지 국내외 조각 트렌드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청년작가 50명(100점)이 참여하는 '영 아티스트전', '중국 청도교류전', '한국전통문화전', '공예기획전' 등이 행사를 풍성하게 꾸민다.

개막식에서는 '8·24 광주 아트파티'가 열린다. 'Art For Humanity Movement'을 주제로 국내외 인사 40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후원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사드 문제로 민감한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미술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홍수와 13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세르누치 미술관·'살롱 콩파레옹'과 연계해 내년부터 광주 작가들이 프랑스에서 초대전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리 ISA(유네스코 국제지원 국제협회)는 지난달 27일 광주미술협과 맺은 협약을 통해 2017년부터 4년간 광주작가들을 초대한다. 또 그랑팔레 미술관에서 열리는 '살롱 콩파레옹' 내년 전시에 광주작가들이 초청된다. 세르누치 파리스미미술관도 광주미술협과 협약을 맺고 광주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열기로 합의했다. 문의 062-226-8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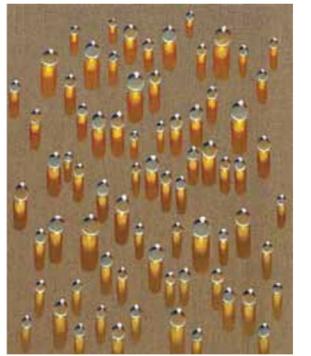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가 24~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행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백남준 'Fin de Siecle Man'



김창열 'Recurrence SPY201505'

10개국 13개팀 참여...신나는 여름밤 음악 피크닉

19~20일 문화전당 일원
'ACC월드뮤직페스티벌'

'한여름밤 신나는 음악 피크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이 19~20일(오후 3시~밤12시) 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에는 덴마크, 콜롬비아 등 10개국 13개 팀이 참여하며 예술감독은 지난 2010년부터 페스티벌을 이끌었던 인재진씨가 맡았다.

해외 출연진으로는 아랍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락앤롤, 재즈, 블루스 사운드를 더한 예멘 블루스를 포함해 신나는 콜롬비아 카니발 음악을 선보이는 리치바 칸티바, 재즈·아프리카·전자음악그룹인 덴마크의 칼라하(왼쪽)와 알리.

또 가수 김태우는 케이팝에 재즈를 접목시킨 다양한 곡을 재즈 뮤지션들과 선보이며 베이시스트 성민재,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 폭발적 가창력의 가수 알리가 깜짝



덴마크의 칼라하(왼쪽)와 알리.

트리오로 참여한다.

드라마 '아일랜드' 삽입곡 '서쪽 하늘'로 유명한 밴드 '두번째 달'과 국립창극단원 김준수의 무대도 눈길을 끈다. 또 '클론' 활동 이후 일렉트로닉 음악 전도사로 변신한 DJ KOO는 흥겨운 클럽뮤직으로 축제 밤의 열기를 달굴 예정이다.

19일 오후 4시 예술극장 로비에서는 하림과 아나운서이자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손미나가 함께하는 '음악이 있는 토코스'도 열린다.

ACC 개관 후 처음 열리는 페스티벌답

게 올해 축제 무대는 하늘마당(하늘 무대), 예술극장 야외무대(바람 무대) 등 전당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5·18 광장에 마련된 '반디 무대'에서는 음원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풍각밴드', '크림 드리오', '내 이름은 빨강' 등 12개 팀이 흥겨운 공연을 선보인다. 그밖에 베틀시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공연 일차별 출연 뮤지션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공연. 문의 062-601-40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문화관, 단막 창극 '뽕파전' 판소리 '심청가' 공연

내일 명인·명창추모사업회
21일 박춘맹 창극단 초청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에서 남도의 흥과 멋이 담긴 다채로운 상설 공연이 열린다.

토요상설 공연은 20일 오후3시 서석당에서 명인·명창추모사업회(대표 이은하·광주시 남도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청 무대를 갖는다.

단원들이 해금산조를 시작으로 판소리 '심청가' 눈대목인 '황성올라가는 대목'과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또 교방입춤에 이어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을 표현한 '만첩정산'을 이은하 명창과 김해진, 황소의 씨가 단막 창무극으로 보여준다.

21일 오후 7시 30분 야외 너털마당에서 열리는일요상설공연은 박춘맹 창극단의 '뽕파전'(사진)을 초청했다.

판소리 '심청가' 중 가장 해학적인 대목으로 손꼽히는 맹인잔치 황성 올라가



는 부분을 단막 창극으로 꾸민 작품이다. 심봉사 역의 박춘맹 명창을 비롯해 뽕파전 역에 박정희, 황봉사 역에 최은석 단원이 출연한다.

공연 전후 참여 관람객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돛자리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규남면선 1층) · 400여점 전시

깔끔하고 건강한 맛!

화순 요리전문점

샷강 다슬기 성업중!!

샷강 다슬기는 국산 자연산 다슬기로만 4시간 동안 가마솥에 우린 자연의 맛 육수로 춘달백숙, 오리백숙등 모든 요리를 만듭니다.

다슬기의 효능 다슬기의 성질은 차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의 치료 • 숙취해소와 신경통, 시력보호 • 열독과 각종 해소
- 위장기능개선 •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 • 빈혈 증세 효과 •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 무지방 고단백질 건강식품 • 간염과 눈의 충혈 통증을 다스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각종모임 예약환영
춘달백숙, 오리백숙
1시간전 미리 예약

*다슬기 춘달백숙
*다슬기 오리백숙
*삼계탕·수제비·초무침
*다슬기 영양 돌솥밥

샷강 다슬기 화순읍 안양신로 94
☎(061)372-8600
H. 010-5308-7045

광신대학교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多
즐겁게·樂
모이자·房**

교육일시

-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

장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강료 무료

신청문의

-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연수)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청다락방

회기	일정	주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뚜기!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